

# 남원, 지자체 생산성평가 대상

### 취업자 증가율 · 지역안전지수 등 5개 분야 평가

남원시가 2019년 전국에서 가장 살림살이 잘하는 지자체로 선정되며 대상인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표창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11년부터 생산성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종합적인 내부 행정역량을 측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을 신청하였으며, 한국생산성본부가 취업자 증가율, 문화기반

시설 이용 수준, 지역안전지수, 주민참여예산 수준 등 5개 분야 20개 지표를 통해 생산성 지수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남원시는 총 1000점 만점에 854.56점을 받아 자율 응모한 175개 시·군·구 중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재정역량 분야에서 지방세 징수율이 97.36%에 달하는 높은 실적을 보이는 우수단체로 나타났다. 주민참여 예산수준은 세출예산의 0.71%로 전국 지자체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금년도 생산성 측정에서는

국정운영 핵심가치인 사회적가치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예산비율, 탈빈곤율, 성인지 예산비율 등과 같은 신규지표를 추가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를 생산성 관점에서 진단한 결과여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현주 시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의 경쟁력을 높여 살기 좋고 건강한 남원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 생산성 평가 도내 군 단위 1위

### 도내 14개 지자체 중 2위, 전국 5만미만 군 단위서도 2위 기록

순창군이 도내 군 단위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4일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결과에서 총 1000점 만점에 779.08점을 맞아 도내 군 단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시 단위를 포함하면 도내 14개 지방자치단체 중 2위의 기록이어서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온다. 또한 전국 5만미만 자치단체 48개 군 중 전남 장흥에 이어 2위에 기록되는 수치다. 순창군은 지난해 평가에서 생산성 우수 부문에 이름이 거론되지 못했지만, 이번에 전국 2위에 기록되며, 생

산성 우수 자치단체의 반열에 오르며 전국에 이름을 드높였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과 역량을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활용해 생산성 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해 지자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생산성 평가는 지난 6월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175개 자치단체가 자율 응모 했으며, 한국생산성본부가 취업자 증가율과 문화기설 이용 수준, 지역안전지수, 출산율 증가율

등 20개 지표를 통해 생산성 지수를 측정했다. 행안부에 제시한 생산성 높은 자치단체란 기관이 지난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환경·문화·복지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또한 행안부는 올해 특히 생산성 측정에서 국정운영 핵심가치인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예산비율이나 탈빈곤율 등과 같은 신규지표를 추가해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 등을 생산성 관점에서 진단했다고 발표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소재 ㈜버섯고향이 국내산 버섯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위해 베트남 국영신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버섯류 생산업체 해외진출 시동

### 임실 소재 버섯고향, 베트남 국영 신문사와 협약 체결

임실군 소재 ㈜버섯고향(대표 배태연)이 국내산 버섯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위해 베트남 국영신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임실군 강진면 소재 ㈜버섯고향에서 베트남 한국어판 국영신문사인 배한 타임즈(대표 김종각)와 업무협약을 체결,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고 24일 밝혔다. 버섯고향은 지난 2016년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구 학석분교에 소재한 버섯류 배지를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최근 공장 증축 등을 통해 버섯류 배지생산의 현대화와 영지버섯의 재배 및 가공에 세계 일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기술자 및 연구진을 채용하는 등 버섯류 배지 생산의 국내 최고 업체로서 위상을 갖추어가고 있다. 특히 국내산 버섯을 대량생산 재배로 세계 각국에 수출해 지역경제는 물론 외화획득에도 일조하기 위한

야심찬 포부를 갖고, 회사운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어 버섯들을 중국산에 의존하지 않고, 100% 국내산을 생산하고 세계 각국에 버섯 식품과 의료, 미용에 접목하여 수출증대를 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령층과 여성분들에게 고지혈증과 혈액정화, 골다공증의 증세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버섯을 생산·공급하는 한편 난치성 치료제를 위한 버섯을 찾아내 개발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있다. 현재 자체 생산한 배지를 회사소유 실습농장 25동에서 전국 각지의 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재배 기술자의 현장 지도를 통해 배지영지의 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하여 인근 순창 및 정읍 등지에 제2, 제3의 회사 실습농장을 조성, 영지버섯 재배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에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매아리

### 순창, 백내장 수술비 지원 대상 확대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백내장 수술비 지원대상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에서 120퍼센트 이하로 상향조정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화제다. 이는 군이 백내장 수술비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군은 현재 60세이상 어르신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관리비 등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은 군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공동으로 후원한다. 지난해에만 248명의 어르신이 무료안과검진을 실시해 약품 및 돋보기 지원을 받았으며, 이외에 50명의 어르신은 수술비를 지원받았다. 수술은 순창읍에 위치한 안과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이뤄지며, 필요시 전북도내로 확대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063-650-5252)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아동 ·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남원시는 24일 아침 남원중 정문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남원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남원시, 남원경찰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청, 법무남원준법지원센터, 남원의료원,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1개 기관에서 2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패널을 전시하고, 리플릿과 홍보물 등을 나누어 주며 폭력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OX퀴즈를 진행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폭력으로 도움이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 경찰서 및 상담소로 전화하거나 방문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조현익 남원시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시에서는 다양한 폭력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여성친화도시 남원에 걸맞은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귀농 임미선 농가, 페이스북 최우수상

### 제9회 전북 농업인정보화경진대회, 페이스북 라이브방송분야

임실군에 귀농한 임미선(42) 씨가 제9회 전라북도농업인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농업인정보화 경진대회란 농업인의 정보화 역량을 향상시켜 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매년 열고 있다. 지난 20일에 벌어진 제9회 전라북도농업인정보화경진대회 개인부문

5개분야 중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분야에서 관촌면에 거주하는 임미선 농가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경진대회는 당일 경진 장소에서 작품에 대한 주제가 주어지고, 주제에 어울리는 문장을 작성해야 한다. 농작물, 상품 등 다양한 이미지를 주제에 맞춰 촬영하여 자신의 정보화 역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경진대회에 참가한 임미선 농가(최강동안 농장)는 작년에 임실군으로 귀농하여 들깨와 참두릅을 주작목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 농업인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임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임실군에서 실시한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을 통해 유튜브 활용 및 동영상 편집기술을 익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사과 가격 폭락 대책 나서

남원시가 예년에 없는 사과(홍로) 가격의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관계자에 따르면 고르지 못한 기상과 추석 이후의 가격 폭락이 이어지면서 생산량의 40%가 수확을 못하거나 재고상태로 농가들의 창고에 저장 중에 있으나 홍로의 특성상 저장력이 없어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원시는 사과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수확을 못하고 있는 농가에 남원시청 산하 직인 및 군부대 장병 등을 동원해 수확을 지원

할 계획이며, 지역기관·단체, 출향향우회와 시민을 대상으로 1세대 1박스 사과 팔아주기 운동으로, 택배비100% 택배비 지원하는 2인1박스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유익한 플랫폼을통해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며, 비타민C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사과 소비촉진을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간식으로 과일을 확대 공급하고, 시 농업기술센터에 상시 인력을 지원해 사과즙 등 가공식품 개발로 소비촉진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